

정부가 국방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 정보화 프로젝트는 건당 예산이 수십억에서 최고 수백억 원으로 어마어마하다. 유-디펜스연구소는 이같은 국방 분야 EA(군 정보화 청사진)를 설계하는 군사전문 컨설팅회사로서 최근 군 전장관리 EA사업의 1단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경쟁사인 삼성SDS, LG EDS 등 거대 SI업체를 제치고 군 정보화 사업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유-디펜스연구소를 찾아가 보았다.



20년 이상 경력의 군사전문가들이 주축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위치한 유-디펜스연구소는 20년 이상 경력의 군사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룬다.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 김기순 대표는 30대 후반이라는 것. 회사의 주축인 50~60대 군사 전문가들과 연배에서 꽤나 차이가 난다. 더구나 그의 경력은 군과 무관한 금융업이라고. 2006년 7월에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선물거래 회사에서 근무하며 국공채 매매와 관련한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던 그가 군사전문 컨설팅회사를 창업하게 된 계기는 현재 함께 일하는 군사 전문가들과의 친분이 크게 작용했다. 군사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국방정보화 사업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다. “현재까지 국방 정보화는 주로 IT기술전문가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사 분야는 그 특성상 매우 전문성이 특화된 영역이므로 군사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국방정보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업계 제1의 전문컨설팅 기업을 목표로 유디펜스연구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회사는 10여명의 예비역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군사 전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다. 김 대표는 “국방사업은 자원·전장·교육훈련·기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에는 군사전문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설팅에는 소요제기영역(선행사업, 개념연구 등)과 개발영역(직접참여, 감리 등), 그리고 사후관리(교육,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가 있다고.

군사 전문 용역회사 발전할 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사 전문 컨설팅은 ‘국방EA(전장관리 아키텍처)’ 개발사업이다. 김 대표는 “미래 국방 정보화청사진을 그리는 국방EA사업은 군의 첨단정보

과학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설명하며 “군사 전문 컨설팅은 가까운 장래에 연간 1조 원의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방부는 EA를 단계별로 도입하고 2009년까지 합참 및 육해공 등 각 군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용만 100억 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현재 1단계 EA사업을 수주했고 앞으로

2~3단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 정보화 사업을 넘어서 정부 부처와 민간 프로젝트까지 진출할 계획 이란다.

“해외에는 군사 전문 용역회사(PMC)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납, 군 컨설팅 자문, 국방정보 및 과학기술 개발 등 다양한 군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김 대표는 올해 1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련미를 갖춘 군사전문가들과 패기와 추진력을 가진 김기순 대표가 이끄는 유-디펜스 연구소.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절묘한 결과물이 우리 국방력의 업그레이드를 이끌것을 믿는다.

◆ 용어설명

국방 EA(Enterprise Architecture) 프로젝트 : 국방 EA는 국방 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아키텍처저장관리시스템(ARMS)의 주요 내용으로 「국방개혁 2020」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이다. 국방부는 EA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혁신 추진 기반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관리 보장, 국방정보체계 간의 상호운용성 증대 및 체계 통합 방안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디펜스연구소 김기순(가운데) 대표는 해외의 군사 전문 용역회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군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